

전교조의 꿈과 현실

글 · 어수갑 eohsg@kdemo.or.kr



참교육실천을위한 서울지역학부모회가 생산한 사진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에 다니던 18년 세월 동안 이 나라의 대통령은 오직 한 사람, 박정희였다. 세상과 타자에 눈 뜨고 사물의 이치를 하나 둘 헤아릴 순정한 시기를 우리 세대는 그의 이데올로기로 골수까지 무장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다.

일제 때의 군복과 다름없는 교복을 입고 한여름에도 두터운 검정 모직 모자를 썼다. 모자 안의 머리는 박박 깎은 '배코'나 '2부가리' 정도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란 것을 시도 때도 없이 달달 외워야 했다. 얼룩무늬 교련복을 입고 삼복더위에 맨땅을 기는 훈련도 했다. 학도호국단이라는 군국주의 냄새가 물씬 나는 제도도 존재했고 대학에서 교련은 의무수강 과목이었다. 우리의 정신은 반공과 일제 잔재인 권위주의, 획일주의, 군사문화주의로 덧칠이 강요된 채 아만의 시대를 거쳐야 했다. 그때 우리의 청춘은 아름답기는커녕 비루했으며 처절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위수령과 긴급조치, 장발과 미니 스커트 단속 등 지금 생각하면 코미디 같은 억압의 세상에서 청춘을 보냈다. 그것은 트라우마였다. 미래는 없었다. 결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10대와 20대를 살았다는 사실이 때론 슬프다. 무엇이 그 시절을 견뎌내게 했던가. 그것은 아마도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법(정확히 말하자면 삐딱해진 세상을 바로 보는 법)을 가르쳐준 책들을 통해 다른 세상에 대한 꿈을 꾸었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다. 당장은 비현실적이며 무모하게 보일 지라도 모두가 함께 조금씩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꿈.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꿈을 꾸며 희망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시절, 파울로 프레이리의 『페다고지』를 돌려보면

서 많은 이들이 교육이야 말로 이 전도된 세상을 바로 잡을 가장 중요한 백년대계임을 뼈저리게 확인했다. 『페다고지』에 의하면 교육이란 '새로운 세대를 현 제도의 논리 속에 통합하여 거기에 적응되도록 만드는 도구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 인간들이 현실에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처하여 자기 세계를 변형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수단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페다고지』는 물론 후자의 입장을 역설한다. 20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만들었던 교사들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6월항쟁 이후 사회 전 부문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는 가운데, 교육 민주화를 실현하려는 전국의 교사들이 주체가 되어 전교조 결성이 추진되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문교부의 대회 참가자에 대한 징계 위협과 경찰에 대한 원천봉쇄 위협에도 불구하고 1989년 5월 14일 전국 시도 10개 지역에서 15,000여 명의 발기인으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어 준비 작업을 거쳐 마침내 5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결성 준비위원회' 주최로 한양대에서 결성대회를 치루기로 하였다.

하지만 발기인대회 이후 정부는 모든 기관을 총동원하여 갖은 협박을 다하면서 전교조의 결성을 막으려고 징계와 구속, 사전영장 발부 등을 가했으며 경찰은 5천여 명의 경찰을 풀어 결성대회를 원천봉쇄하였다. 이날 오후 연세대로 장소를 옮겨 결성대회를 강행하였는데, 윤영규 교원노조준비위원장(전남체고)과 이부영 부위원장(서울 송곡여고), 이수호 사무처장(서울 신일고) 등 집행 간부와 8개 시·도지부 준비위원장 등 교사 200여 명이 참가하였다. 결성대회는 대회사, 임시의장 선출, 위원장 선출, 노조 결성선언문 낭독 등의 순서로 20여 분만에 끝났다.

이들은 결성선언문에서 “오늘 우리의 교육이 수십 년 군사독재를 청산하여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棟梁)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을 수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교직원들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유린한 독재정권의 폭압적인 강요로 인하여 집권세력의 선전대로 전락”했다며 학생들을 ‘공동체적인 삶을 실천하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가르치겠다고 선언했다. 대회를 마친 뒤 윤 노조위원장 등 집행 간부와 직위 해제된 노조원 등 26명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마포구 민주당사에 들어가 교원노조 탄압 중지와 연행교사 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결성은 4·19 직후 교원노조 건설운동이 군사독재정권의 혹독한 탄압으로 좌절된 때로부터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교육민주화운동의 새로운 형태로 다시 등장한 것이기에 1989년을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의 마당이 열리는 ‘참교육 원년’이라 부르기도 한다. 사실 전교조가 결성되기까지는 1978년 6월의 『우리의 교육 지표』 사건(이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9월 1일 수사기관의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85년의 『민중교육』 지 사건과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협의회가 1987년 8월부터 1989년 2월까지 행한 교육민주화운동 등 교사들의 교육민주화를 위한 면면한 투쟁이 있었다.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에 따르면 전교조는 7월 14일까지 지부 15개, 지회 115개, 분회 565개를 결성하고, 467명의 교수까지 참여해 일단 대중적 조직 기반을 닦았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초강경 탄압을 받아 피해가 많았다. 전교조 결성 전후 약 6개월 동안 1,500여 명의 교사가 강제로 교단에서 내몰렸다. 이상은 주

로 전교조 결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후 전교조는 합법화 투쟁을 꾸준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10월 30일 노사정위원회는 제10차 본회의에서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합의하였다. 1999년 7월부터 교원노조의 활동이 전면 합법화되었다. 결성으로부터 10년의 긴 세월이 흐른 후였다.

사료관에는 전교조 관련 사료가 무려 1만여 건이 수집되어 있다. 이 중에는 결성 과정과 관련하여 발기인대회 경과보고, 결성대회 자료집, 결성 선언문을 비롯하여 제 1차 전교조 대의원대회, 학생권리수호선언 등과, 린다존스 여사가 기증한 외국어 사료, 전교조 걸개그림, 노래테이프 〈해맑은 웃음을 위하여〉 등이 있다. 윤영규 초대위원장이 상당분을 기증했다.

전교조 결성 20년이 지난 2009년의 상황은 어떠한가, 결코 밝다고 말할 순 없다. 지난 6월,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한다’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교사 89명에 대해 교과부가 7월 31일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교육청에 권고하는 등 전교조 ‘손보기’가 본격화 되었다. 또 학생들이 2011년부터 읽을 교과서엔 제주 4·3항쟁, 여순사건 등 건국시기 주요 사건이 누락되고, 노동·시민운동 전개에 관한 내용이 빠지는 등 뉴라이트로 대변되는 특정 사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저자 동의 없이 수정한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해 최근 법원이 배포금지 판결을 내렸지만, 교과부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버티기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씨가 뿌리내리고 열매 맺기에 한국이라는 토양은 여전히 척박하다. 더욱 세련된 모습으로



전교조 탄압저지와 합법성 옹호를 위한 제 2차 국민대회 포스터



전교조를 알리는 티슈

비인간화를 향해 치달으며 동물적 본능만이 휘번득거리는 개념 없는 세상. 이런 세상과 맞서는 일의 중요함 이야말로 영혼 없는 경제속물주의로 뒤범벅 된 현실을 보며 깨닫는 진실이다. 내 영혼이 자유롭고 내 이웃과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세상을 꿈꾸기 위해 우리는 20년 전이나 마찬가지로, 아니 그때보다 더욱 치열하고 비판적인 의식의 각성상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교육에 구현하기 위한 용기와 양심을 지닌 이들이 필요하다. 전교조의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정에서 많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따랐지만, 그들의 존재 가치가 여전히 이 땅에서 유효한 이유이다.

전교조든 아니면 다른 이름의 교육주체든 교사들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을 소통 가능한 인간으로 키워달라는 것이다. 소통이 부재한 먹통의

시대에 이만큼 절실한 일이 또 있겠는가.

서울대에서 ‘말하기’ 강의를 하는 유정아 식으로 말한다면, “소통이란 나는 알고 남들은 모르는 숨겨진 자아로부터,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눈먼 자아로부터, 나도 알고 타인도 아는 열린 자아로 나아가는 길이다…… 자신과 소통할 줄 알고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으며, 그것이 곧 열린 자아로 가는 길”이다. 소통이야말로 민주주의로 가는 전제이기 때문이다.

글 · 사료 어수갑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